

울주군, 두현저수지 명품 수변공원 조성 본격화

✎ 김대섭 기자 | ⓒ 승인 2026.07.28 18:19

농어촌공사 울산지사와 위·수탁 협약...150억원 투입, 내년 준공 목표



울주군의 두현저수지 명품 수변공원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식 모습. 사진/울주군

[울산·경주 취재본부 / 김대섭 기자] 울산 울주군이 청량읍 두현저수지 일대에 명품 수변공원 조성을 추진한다.

울주군은 28일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와 '두현저수지 명품 수변공원 조성사업' 위·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협약식에는 이순걸 울주군수와 김상훈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장, 이연택 농어촌사업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.